

2018년도 동서대학교 입학식

새로운 동서가족, 새 마음, 새 뜻으로!



설레는 마음과 부푼 기대감을 가득 안고 2018학번 신입생들이 당당하게 등장했다. 지난 2월 27일 동서대학교 민석스포츠센터에서 2018학번 신입생들의 입학식 행사가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유의신 목사 등 동서대 교직원들과 총학생회 및 학부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신입생 2551명의 입학에 격렬히 환영했다.

올해 신입생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뿐 아니라 충북 청주, 경기도 김포, 전남 순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 고루 분포돼 있다.

입학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임권택영화상예술대학 선배들이 갖 입학한 새내기인 동서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동서대 학생이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공연을 선사하며 입학식의 아늑한 분위기를 띄워 주며 2018학년도 입학식이 개최됐다. 이 공연에서 새내기들도 박수를 치며 선배들의 공연에 적극 호응했고, 각 학부장이 소개될 때마다 해당 학부 신입생들은 합성을 지르며 차세대 인재다운 기개를 한껏 보여줬다.

입학식은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가에 대

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 기도, 연혁 및 학사보고, 장제국 동서대학교총장 입학 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선서, 장제국 총장의 환영사,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의 격려사, 세족식,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장제국 동서대학교총장의 입학 허가 선언 이후 신입생 대표 선서가 진행됐다. 신입생을 대표하는 학생답게 우렁차고 자신감 넘치는 선서를 통해 자리에 참석한 동서대학교 전 신입생들의 마음을 한껏 고조시켰다.

이번 신입생은 2018학년도 수시·정시모집 지원자 2만104명 중 저열한 경쟁을 헤치고 선발됐다. 학령인구가 줄어가는 추세 속에서도 동서대 입시경쟁률은 해마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대에 합격한 새내기들의 자긍심은 클 수밖에 없다.

전체 수석 입학한 영화과 김도경(한국교원대 부설고 졸업) 학생은 "꿈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저의 정춘은 영화가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싱그러운 햇살이 가득한 어느 봄의 개강 날 저의 새삼을 동서대와 함께 피우게 되어 기쁘게 생

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내기들의 기대에 부응해 동서대학교는 입학식 행사에서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키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학부별로 전 신입생 이름을 새긴 현수막을 내걸고 입학에 축하하는 동시에 새내기 전원이 하나같이 귀한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총장을 비롯한 교수들은 세족식을 통해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장제국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대학 프로그램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라 오기만 해준다면 여기 새내기들이 졸업장을 받는 그날에는 총명한 머리와 능란한 손,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진정한 인재로 거듭나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진행된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서대 학생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동서대를 선택한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대학에 왔습니

다. 따뜻한 마음과 실력을 겸비한 교수님들과 최첨단 교육환경이 여러분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될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첫째 좋은 친구를 만나세요. 먼저 좋은 친구로 다가가세요. 그러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둘째 교수님을 만나세요. 성실한 학생으로 다가가면 평생 지도교수로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동서대 건학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생활하십시오. 바쁘지만, 동서대 건학정신은 진리·봉사·창조입니다. 4년 후에는 인류에 쓰임을 받는 큰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며 신입생들에게 앞으로 있을 학과 생활에 대한 진심어린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의 격려사를 끝으로 모든 동서가족이 교가제창을 하며 입학식을 마쳤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2018 신년예배·신년하례회

동서학원, 2018 새로운 출발



지난 1월 4일 동서대학교 U-IT관에서 동서학원 신년예배, 신년 하례회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동서대학교·부산 디지털대학교·경남정보대학교 등 동서학원 교수와 직원들이 참석했다.

2018년 동서학원은 '화목'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모든 동서학원 식구들이 화목한 가운데 발전을 이뤄가자는 의미를 갖는다. 올 해의 표어도 '주 안에서 화목 하라'로 정했다.

하례회에서 동서학원 식구들은 '주 안에서 화목 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13절 말씀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대학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갈등이 갈등을 낳고 혼란 속에 빠져 퇴보하게 된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동서학원 식구들은 서로 격려하고 화합해 교수와 교수, 학생과 학생이 행복하고 아늑하고 활기찬 캠퍼스를 만들어 달라."고 신년사를 통해 당부했다. 이어 "동서학원 3개 대학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시설, 교육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서로 힘을 합치면 한국 최고의 미래형 대학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했다.

신년예배는 ▲찬양(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최훈규 담임목사 기도 ▲동서학원

교직원연합 성가대 특송(찬양하라 내 영혼아) ▲성경봉독 ▲유익신 교목실장 설교 ▲찬양(아버지여 나의 맘을)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신년 예배에서는 유익신 동서대 교목실장이 '주 안에서 화목 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주님 밖에서는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림으로써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루어 낼 수 있고, 서로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화목 하는 동서가족이 되고, 이를 통해 동서학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내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설교했다.

신년 인사에서 장제국(동서대학교 총장)은 "대학 환경이 어렵다지만 구성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사랑을 쏟아 붓는다면 학생들은 동서학원으로 물러갈 것으로 믿습니다.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화목해질 것이며 이런 가운데 각자가 맡은 일에 열정을 바칠 때 대학은 반석 위에 올라서고 어떤 풍파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사령 · 편집국장-나경훈(방송영상전공·3) · 정기자-이현희(국제통상전공·4)

2018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두가’ 하나로! 2018 신입생 한마당



동서대학교 신입생들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두드렸다.

지난 2월 28일 오후 1시에 벅스오 오디토리움 2층 공연장에서 동서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제 26대 '모두가' 총학생회가 주최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한마당'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 됐다.

신입생들은 행사에 입장하기 전 오전 11시 30분부터 학생회비를 현장에서 납부했다. 학부 전원이 납부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신입생들은 들뜬 모습과 기대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학생회비를 먼저 납부한 순서대로 공연장에 입장하여 전원이 착석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행사장 소개영상 및 안전교육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행사를 함께할 진행자가 등장하고 간단하게 행사에

관한 공지를 했다. 2시부터 행사는 축하영상과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입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동서대 부총장의 축하사가 이어졌다. 이후 26대 총학생회가 출연, 제작한 영화 '별죄도시'를 패러디한 영상을 상영하며 임권택영화상예술대학 선배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을 마친 후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대의원회가 입장해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학부대표의 입장 및 소개와 함께 학생들이 춤을 추며 각 학부마다 뜨거운 응원과 구호, 율동과 함께 행사장의 열기를 높였다. 이후 '1부 복면가왕'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행사의 볼거리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었다. 신나는 분위기를 이어받아 학부 별 단합게임을 시작하여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의 단합력을 보여줬다.

2부의 시작은 '2부 복면가왕'으로 진행됐

다. 들뜬 분위기를 이어받아 신입생들이 가장 기다리던 초청가수 김범수가 등장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공연은 많은 신입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그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은 채,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줬다. 신입생들은 휴대폰 조명을 이용해 좌, 우로 흔들며 가수의 공연을 더욱 빛나게 했다. 공연을 마친 후 학부별 게임 결과 발표와 함께 경품 추첨을 하고 폐회식을 하며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입생들의 열정으로 인해 26대 총학생회가 만들었던 이 행사는 6시간이라는 꽤나 긴 시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남동우(연기과 18학번) 학생은 "달로만 들던 대학축제를 즐겨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더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동서대, 올해 취업률도 '우뚱'

부·울·경 4년제 대학 '나' 그룹 "2년 연속 1위"



동서대가 대학 특성화 교육과 국제화를 선도하는데 이어 취업률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올렸다.

동서대는 부·울·경 4년제 대학 '나' 그룹(졸업생 2000명 이상~3000명 미만)에서 2년 연속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 지난 15일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 공식 발표에 의하면 취업률 68.5%(2016년 12년 31일 기준, 대학 알리미사이트)를 기록,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

조선기자재 등 부·울·경 주력산업 부진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대만의 7대 진로역량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맞춤형 인재양성 결과다.

동서대는 자체 취업역량 강화 사업 외에

도 취업 관련 정부 사업에 대해 선제적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6개 과정이 선정되는 등 취업의 국제화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선정돼 5년간 93억을 지원받아, 산업체 실무역량을 갖춘 동서대 학반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상협 창의인재육성처장은 "동서대는 1학년 부터 D-MAP(Diagnosis, Motivation, Affection, Plan)수업을 통해 동기부여 및 미래 진로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는 등 진로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면서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인재를 배출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

었으며,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대학당국이 총력적인 지원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대는 지난해 ▲2017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촉진사업 ▲이벤트 컨벤션전공 UNI.P 유스컨벤션 지역특화사업 ▲미(美) 버라이어티지 세계 20대 영화학교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건축분야 BEST ▲2016년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CK-1) 6개 사업단 ▲2017년 잘 가르치는 대학(Ace+)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대학 육성사업(LINC+) ▲K-Move스쿨 사업 6개 과정 ▲관광학부 섹터 산업단지 사업(2018 섹터캠퍼스 이전)에 선정되며 미래형 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가속을 붙이는 중이다.

나경훈 기자
nkh0301@gmail.com

동서대학교 제 23회 학위수여식

도전하는 ‘東西精神’ 발휘해 달라



▷학위수여식 축하 연설을 하는 장제국 총장

지난 2018년 2월 9일 오전 11시, 뉴질랜드 니암관 2층에 위치한 소향아트홀에서 ‘제 23회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제 23회 학위수여식에는 장제국 동서대 총장,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 추만석 경남경보대 총장, 양상백 부산디지털대 총장, 동서대 교직원,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해 축하하며 졸업식 자리를 빛냈다. 동서대학교와 자매대학인 인도네시아 Petra Christian University(PCU)의 주완토르 하지도 총장도 학위수여식 자리에 함께 했다.

장제국 총장은 수여식에 참여한 가족들

에게 “그간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 동서대는 부모님들이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다.”며 전했다. 이어 졸업생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로 나간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도 막막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때 모교에서 배운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일하는 교육’을 상기해 달라.”며 강조했다. “사회에 진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명을 가슴으로 느끼고, 용기를 내어 대담하게 도전하는 동서정신을 발휘해 달라.”라

는 말도 덧붙이며 졸업하는 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박동순 이사장은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다. 학부모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흐듯하고 행복할 것이다. 4년 동안 민석 동산에서 쌓았던 소중한 경험들, 느꼈던 것, 괴로웠던 것, 즐거웠던 것, 힘들었던 것, 이 모든 추억들은 졸업생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값진 자원이 될 것이다. 이 소중히 자원들 하나도 소홀히 생각지 말고, 기억하고 잘 다듬어 쌓아가 달라.”며 말했다. “감감한 절망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졸업생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

‘Never, Never, Never, Give up!’을 꼭 기억해 달라.”라는 말을 끝으로 전하며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식을 축하한다.”고 축원했다. 이번 동서대학교 23회 졸업식에는 ▲박사학위 11명 ▲석사학위 82명 ▲학사학위 2218명 ▲명예경영학박사 1명을 배출했다.

박사학위는 일반대학원에서 6명, 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5명이 나왔고 석사학위는 일반대학원 51명, 경영대학원 8명, 선교복지대학원 21명, 디자인전문대학원 2명이 배출됐다. 학사학위는 2개 대학, 12개 학부·2개 계열, 33개 전공·18개 학과에서 받

고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는 인도네시아 PCU의 톨리 인탄 前 총장에게 수여됐다. 톨리 인탄 前 총장은 동서대학교와 PCU 간의 영화·디지털콘텐츠 분야 2+2 복수학위 운영, 2015년 수리바야 세종학당 개원 등 국제화와 양교 간 협력관계 구축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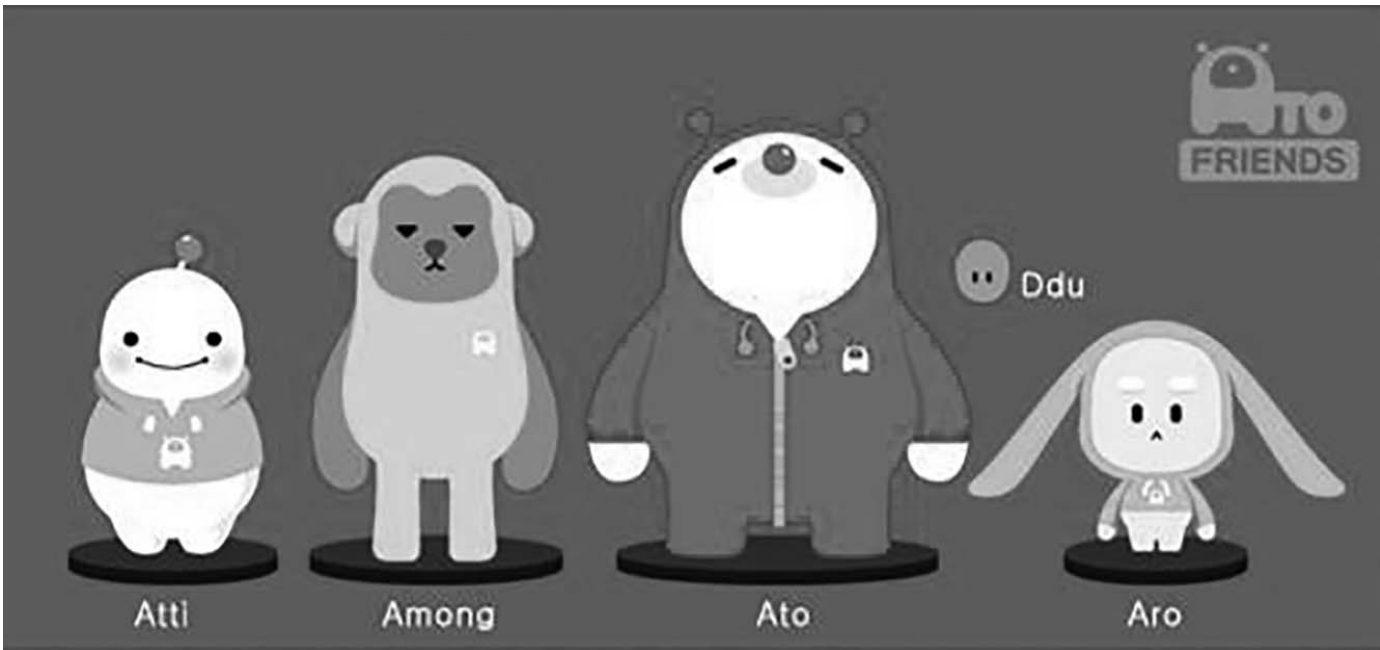
졸업생들은 재학 중에 동서대 캠퍼스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 꿈을 이루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모교를 잊지 않고 동서대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서학원 최고상인 민석상 수상자

인 디자인 대학 황상호 졸업생은 “디자인 대학의 첫 투트교육 졸업이라 내게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며 “많은 가르침을 주신 E1투트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년간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권택영 화영상예술대학 학생들은 졸업식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졸업하는 선배들을 위해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졸업생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못갈만 겹으시라.”는 응원 의 말도 덧붙였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디지털콘텐츠학부 + 애니모션, 홍콩국제라이선싱쇼 참가

자체 개발 캐릭터인 ‘ATO Friends’ 선보여



▷ATO Friends 자체 개발 캐릭터

지난 2018년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총 3일간 매년 320개 이상의 박람회 및 프로모션 활동을 하고 있는 홍콩 무역 개발 협의회(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HKTDC)가 홍콩종합전시장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제 17회 홍콩국제라이선싱쇼(Hong Kong International Licensing Show)’를 열어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와 본 학교 기업인 애니모션이 함께 참가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대상 학교기업으로 선정된 학교 기업 애니모션은 2005년에 설립 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및 3D입체 라이드 필름 제작을 통하여 이윤 극대화 와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에서 나타나는 진동이나 움직임을 특수좌석을 통해 관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수 필름인 라이드 필름을 제작하여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매년 홍콩에서 개최되는 홍콩국제라이선싱쇼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브랜드,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라이선스, 교육용 오락물, 예술, 디자인, 패션,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 기업, 연예인, 대학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분야의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행사로 아시아에서 세계 두 번째 큰 규모의 라이선싱쇼이며 전 세계의 다양한 캐릭터들이 출전한다.

올해 제 17회 홍콩국제라이선싱쇼에는 ▲12개국 377개 업체 ▲105개국 2만여 명의 바이어가 참여했다.

이번 홍콩국제라이선싱쇼에서 동서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캐릭터인 ‘ATO Friends’를 공개하면서 총 10여종의 홍보상품을 전시했다. 디지털콘텐츠학부 3학년 김종현 학생은 “6개월 간 진행된 캐릭터 개발과 그 결과물을 들고 국제 라이선싱쇼에 참여해 보니

졸업 후 취업이든 창업이든 뒤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디어를 잘 다듬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애니모션 대표인 조승우 교수는 “동서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성공을 위해 ‘1인 IIP 개발 및 등록’을 목표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수한 창작 IP는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에서 다양하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서대학교 학생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캐릭터 라이선싱과 캐릭터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사업을 위하여 약 8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과 미팅을 가졌고 그 중, Watson사는 중국내 1만40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인 뷰티·미용·헬스 관련 업체로 ‘ATO Friends’를 활용한 신제품 출시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홍콩국제라이선싱쇼 부스 앞 디지털콘텐츠학부

홍콩국제라이선싱쇼 패어 참여 후, 동서대학교는 관심 업체와의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진행 중에 있다. 디지털콘텐츠학부와 애니모션은 자체 개발한 캐릭터를 기반으로 Full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해외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할 예정이다.

라이선싱쇼 행사는 개최 기간 동안 홍콩 완구 및 게임박람회, 홍콩유아용품박람회, 홍콩국제문구박람회 및 아시아라이선싱컨퍼런스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 유관 바이어의 호환율이 높았으며, 제조 및 유통 관련 바이어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 장점을 가진다.

이번 행사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센터(SBA), 경기콘텐츠진흥원,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국관을 구성했으며, 이 외에도 CJ E&M, 웹젠, 아이코닉스, 성윤피앤피 등의 여러 국내 기업이 참가하여 각국의 바이어들에게 자사 브랜드 및 정보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홍콩국제라이선싱쇼는 여러 기업들 간 콘텐츠 저작권을 판매하거나 해외 마케팅을 진행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된다고 평

가받고 있다.

동서대학교 LINC+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2012년부터 시작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참여한 디지털콘텐츠학부 학생들과 박영준 교수, 이승희 교수의 창작 캐릭터 ‘ATO Friends’ 라이선싱쇼 행사 출전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의 국제적인 무대에서 좋은 결과물을 창출할 것을 기대해 본다.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자격증을 알아보자-중국어 관련 자격증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BCT

Business Chinese Test의 약자이다. HSK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인정한 공인시험이다. 비즈니스 활동 및 일상생활 등 실용적인 중국어를 평가하기 위한 토의 형 중국어 시험으로 “듣기와 읽기”, “말하기와 쓰기” 등 두 유형의 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HSK보다 조금 더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시험이다. 실제로도 다양한 기업에서 취업,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BCT 시험 능력 우수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 각각 분야에 따라 1~5등급까지로 나뉜다.

HSKK

한어수평고이고시라고도 한다. 중국어 화화 표현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녹음 방식으로 진행된다. 'HSKK 초급', 'HSKK 중급', 'HSKK 고급' 3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녹음하는 방식도 있지만, 공 테이프에 녹음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있어서 각자 녹음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HSK

HSK(Hanyu Shuiping Kaoshi), 한어수평고시는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국어 능력시험이다. 중국정부가 인정한 중국어 검정시험으로 중국정부기구인 중국 국가한반이 출제하며 채점 및 성적표를 발급한다. 중국 대학 입학은 물론 중국정부장학생 선발 등에 쓰이는 시험이며, 듣기, 독해, 쓰기의 세 부분, 1급부터 6급까지의 난이도로 나뉜다.

관광통역안내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해 실시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 여행을 안내하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가이드뿐만 아니라 여행사와 호텔, 항공사 등 서비스 영역 전 분야에 걸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격증이다. 총 3가지의 시험으로 나뉘며 있으며, 1차 외국어 시험의 경우 '공인외국어시험'으로 대체, 2차 필기시험의 경우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

학개론 등의 4과목으로 나뉜다. 3차 면접시험의 경우 중국어로 면접을 보는 '실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OPIC

면(面)대면(面) 인터뷰인 OPIC을 최대한 실제 인터뷰와 가깝게 만든 IBT기반의 응시자 친화형 외국어 말하기 평가로서, 단순히 문법이나 어휘 등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언어 평가도구이다. OPIC하면 영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총 5개의 언어가 있다.

CPT

중국언어연구소에서 출제하고 시사중어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초 토의방식의 생활 실용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청구서, 상품 설명서 등 비즈니스 업무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중국어

를 평가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CPT 시험을 환영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50점이 HSK 2급해당, 351~500점이 HSK 3급에 해당, 501~650점이 HSK 4급에 해당, 651~800점이 HSK 5급에 해당, 801~1000점이 HSK 6급에 해당한다.

TSC

TSC는 Test Of Spoken Chinese의 줄임말로, 가장 대표적인 중국어 말하기 시험이다. level 1에서 10가지로 구분된다. 중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언어 능력을 평가할 때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한 말하기 시험 역시 중요시되고 있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중에서도 TSC는 가장 많은 사람이 준비하는 시험 중 하나이다. 시험은 한 달에 한두 번이 있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방송돌보기 - 〈서울메이트〉- OLIVE 채널



세계를 내 방으로, 세계를 한국으로!

‘아주 특별한 호스트와, 아주 특별한 이방인의, 아주 특별한 서울 여행’이라는 소개로 시작한다. 매주 토요일 7시 40분에 OLIVE 채널에서 방영되는 〈서울메이트〉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각자의 사연을 올리고 채택된 외국인이 한국의 스타들의 집에 초대되고 한국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스타의 손길이 닿아 있는 곳에서 외국인 게스트를 맞이하며 2017년 11월 11일에 첫 방영을 시작하였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현지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을 초대해야 한다. 그리고 스타들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도착하기 전까지 누구인지 모른다. 이 점에서 스타들은 매우 궁금해지고 설렘이 가득해진다. 그들은 단지 게스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더 잘 꾸미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이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담긴 버킷리스트를 주면 그것에 따라 더 재밌고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임무이다.

이 프로그램은 예능인 김숙, 김준호와 배우 이기우, 장서희가 진행을 맡아 출연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장서희를 대신하여 가수 구하라도 출연하여 예능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예쁜 집을 공개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청담동 김숙, 여의도동 김준호, 서초동 이기우, 자양동 장서희, 논현동 구하라이렇게 그들의 사는 동네를 소개할 수 있다.

자고로 필자는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할 때 대상자를 자극하는 요소는 소재의 신선함과 재미라고 생각한다. 바로 프로그램의 홈페이지를 구경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너도나도 참여하고 싶은 만큼 스타들의 게스트하우스가 재미있게 소개되어있다. 예를 들어 청담동 김숙의 게스트하우스의 특징은 게스트와의 소통 최우선, 각종 랜드마크 도보 10분, 생활 한복 무료 제공, 포토인화 서비스 가능하다. 흔히 아는 속박 아름다운 에어비엔비를 구경하는 듯하다. 실제 방송을 보면 이러한 특징들이 잘 드러난다.

참가 모집 포스터에는 한글과 영어가 써진 참가자를 모집하는 포스터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최근에는 호스트인 김숙과 게스트인 필리핀 쌍둥이 자매인 타사와 프랑스가 화제가 되었다. 9분 차이로 언니 동생이 된 타사와 프랑스는 너무나도 닮은 외모로 김숙이 누가 언니이고 동생인지 알아맞히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김숙은 지난번 홈 셰어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커피를 설치하고, 샤워 가운과 물품들을 준비해 6성급 호텔 못지않게 집을 준비했다. 필리핀 자매들은 눈이 희하지 않은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며 한국에 오면 눈을 보고 싶다고 그것을 버킷리스트에 작성해오자 김숙은 그들을 데리고 평창으로 떠났다. 필리핀 자매들은 김숙 아래에 진행된 모든 일정들에 만족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첫 방영 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신청을 하고 있고, 스타들은 세계의 호스트 중 한 명으로서 한국을 소개하고 그들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은서 수습기자
eunseo9830@gmail.com

■중국전매대학교 연수 수기-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광고PR 전공 4학년 황민철

중국에서의 연수(研修)

대륙의 문을 두드리다

항상 낯선 곳을 가고, 그곳의 분위기에 적응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은 두렵지만 설렌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느 것보다 값진 기억이 되고 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2018년이 시작되자마자 기회가 되어서 교수님의 지도하에 팀을 구성하고, 중국 북경 전매대학교의 중국 공익광고연구소를 방문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공익광고 교류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전매대학교는 1954년 설립되었으며 중국 유일의 TV 방송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북경의 국립대학교이며, 중국 방송영화 TV부(廣播電影電視部)소속이며, 중국 교육부가 직속하는 “211공정”의 중점대학이자 라디오방송, TV방송, 영화, 네트워크, 출판, 광고에 관한 인제의 양성과 과학 연구에 힘쓰고 있는 곳이다.

이 열정 가득한 곳에 우리가 학생의 신분으로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았고, 중국으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도 온몸에 적당히 긴장감이 들었다. 물론 광고PR학과, 동서대학교, 부산, 우리나라의 이름을 걸고 있어야 하는 자리였기에 며칠씩 밤을 새가며 2주일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었기 때문에 거북한 부담감은 전혀 없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고 비행기를 타서 출발할 때에는 항상 해외여행을 떠나던 기분 또는 느낌과는 사뭇 달랐고 우리 전부가 진지한 표정으로 각자 맡은 바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며 검토하고 있었다. 그렇게 무사히 북경 공항에 잘 도착하였

고 전매대학교 측에서 미리 마중을 나와 웃음 가득한 얼굴과 농담으로 우리를 에스코트해주시며, 우리의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숙소에서 먼저 도착하여 짐을 풀고 왕징징 거리를 돌아다니며 중국 현지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 중국에 첫인상은 ‘광활하다’, ‘방대하다’, ‘온지 있다’ 정도의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 그리고 귀신거리로 유명한 구이저에 가서 가볍게 저녁식사를 먹은 후, 각자 편하게 쉬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다.

교류의 시작, 언어의 장벽, 경험과 배움

우리 모두가 한국에서의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했다. 덕분에 활력이 들었고 이 에너지가 오늘 있을 세미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정해진 미팅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여 전매대학교를 둘러보았고, 엄청난 규모와 넓게 펼쳐진 전디의 지평선과 맑은 하늘, 깔끔한 건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바다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중국 공익광고연구소로 향하였고 전매대학교 측 교수님들과 관계자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머쓱하게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맞이해주었고 전통 화과자와 차를 대접해주었고, 우리는 기본 좋게 준비한 PPT와 영상물 등

의 발표 자료를 세팅하고 점검할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 측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를 건넬며 1차 세미나가 시작되었고, 서로의 언어는 모르지만 통역사분이 계속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

우선 우리는 동서대학교를 짧은 위트 있게 소개를 하였고 뒤 이어서 광고PR학과 학생들이 3-2학기에 CM 제작실습 과목에서 제작한 금연 주제의 공익광고 영상 시사를 하였다. 전매대학교 측에서는 영상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한국 정부에서 만든 공익광고나쁜 질문을 들었고, 참석해있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 제작한 영상들이라는 말에 전매대학교 측 교수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학생이 이렇게 공익광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연출하고 편집하며 제작을 하였는지 많은 질문들을 하였고, 이는 곧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검증되는 것이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았다.

또한 중국 측에서 시사하기 편하도록 노래이션에 전부 중국어 자막을 삽입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준비성과 열정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극찬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 공익광고 20편 이상을 시사하며 열띤 토론을 하였고 이어서 중국 측의 공익광고들을 시사하며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공익광고 보다 훨씬 아이디어가 기발하고 색다른 공익광고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시사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한국과 중국 측 교수님들, 학생들이 어울려 전

매대학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과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점에서 완벽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는 못했지만 서로의 감정과 호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특히 중국 측 학생들은 한국 K-POP과 드라마, 영화에 관해서 큰 관심을 보였고, 북경의 관광지 명소들을 여러 곳 소개를 해주며 꼭 가보기를 권했다. 아쉬웠던 점은 중국어를 조금만 할 줄 알았으면 더 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이런 언어의 장벽은 나 스스로를 반성하게 만들었고 중국어를 꼭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무리 한 후 일한 것을 2차 세미나를 약속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와 2차 세미나를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였다.

아쉬움과 뿌듯함의 경계선

우리는 첫째 날과 같이 모두 일찍 일어나서 조식을 먹고 분주하게 외출할 준비를 하였다. 전날 전매대학교 학생들이 꼭 가보라고 추천을 해준 이화원에 가기 위해서였다. 점심 시간대쯤부터 있을 2차 세미나에 지장이 없도록 꼭두새벽부터 일어난 것이다. 이화원은 가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높았으며 넓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공호수는 가보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고, 우리가 갔을 때는 풍광 열어서 방관이 되어있는데, 그 풍경은 확실히 중국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다. 겨울에는 방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썰매를 타는데, 우리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방관에 뛰어들었다. 한 시간 정도 썰매를 타며 이동했는데도 호수 전체를 다 돌아보지 못했다.

중국에서의 시제는 매우 빨랐다. 어느덧 2차 세미나를 위한 시간이 다가와서 우리의 발걸음은 전매대학교로 향하였고, 두 번째 만남이다 보니 처음과는 색다르게 반갑고 친근했다.

1차 세미나가 학교와 학생을 소개하고 서로의 공익광고를 시사하는 자리였다면 2차 세미나는 한국과 중국의 공익광고 동향을 파악하고 토론하며 문제점을 찾고 향후 같이 진행할 프로젝트에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는 자리였다.

우선 중국의 공익광고는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진행되며 1년에 1600만 위엔 정도를 투자할 정도로 규모가 크며 제작되는 광고의 숫자 역시도 2015년 기준 15만 개로 엄청났다. 그 이유로는 중국은 국가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의 공익광고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캠페인 위주의 영상이라면 중국은 사회적 비판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점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공통적인 문제점은 공익적인 요소보다 기업과 연계되어 그 성격이 모호해지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할지 대한 분석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타 국가의 사례 분석 등 학생으로서서는 자발적으로 하기 힘든 난이도 있는 토론을 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개

최할 1회 공모전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였으며, 성공적으로 동서대학교와 전매대학교의 MOU를 체결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과 학생 모두가 뿌듯한 성과와 아쉬운 마음으로 본 교류전 세미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본 공익광고 교류전을 통해 끈끈한 팀을 이루어 경험하기 힘든 중국과의 학문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가치 있는 기억이 되고 나에게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라는 나라를 방문하여 중국 학생들과 친분을 다지며 타 문화와 국가를 더 이해하는 자세와 편견을 없애는 계기도 되었으며,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언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내가 배우는 광고 분야에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무엇을 하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읽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레 배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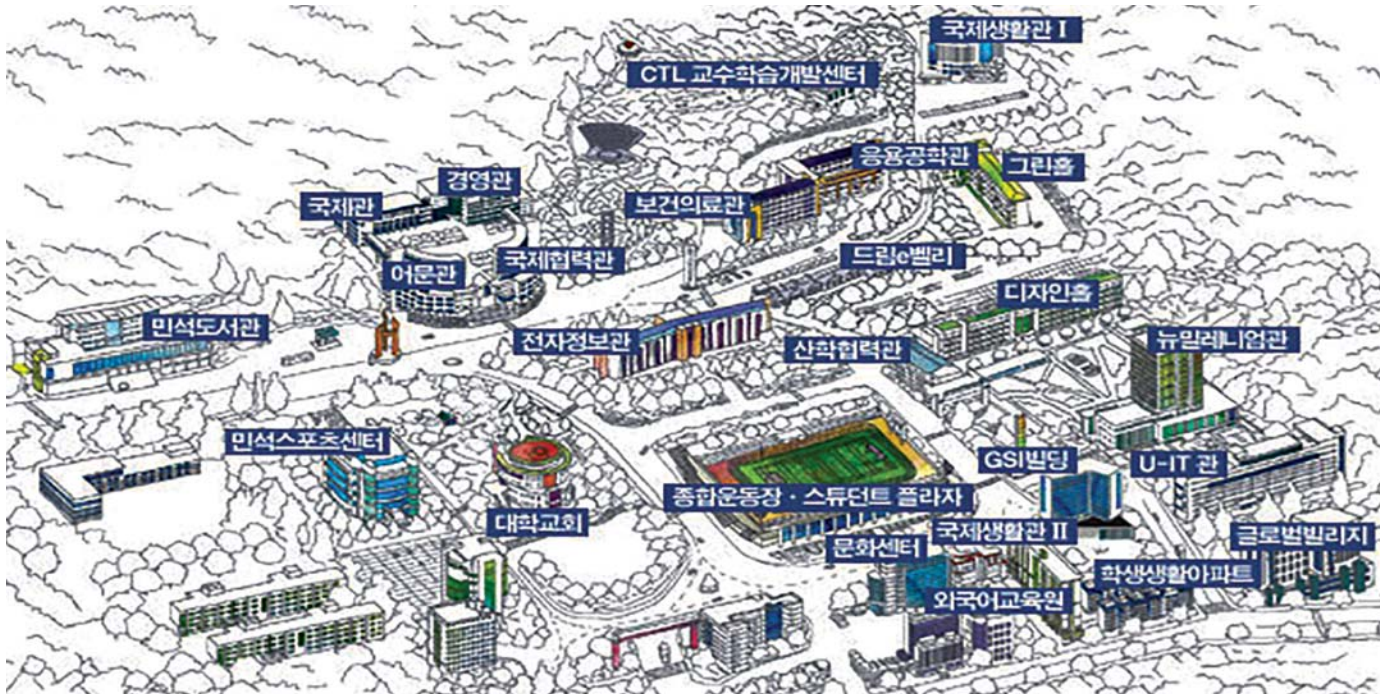
그리고 무엇이든 경험이 중요한 것 같다. 수많은 경험은 나 자신의 스펙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즐기며, 싫어하고 단점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무언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 인생에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워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채워나가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항후 더 큰 세상을 보고 듣고 느껴려면,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내 안의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한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 신입생 꿀팁!

“프린트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급식 먹던 고등학생에서 벗어나 파릇파릇한 신입생 18학번이 된 김 영미. 대학생이 되니 수강신청이란 것을 해보고 입학식도 어리둥절 끝내고 동기들과 개강총회라는 것도 해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첫 과제이다. 그런데 첫 과제 제출 날! 과제를 프린트하는 것을 깜박해버린 것이다. 학교 내 어디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김 영미 학생은 더욱 난감해진 상황이다. 위 상황처럼 급하게 프린트를 해야 하지만 신입생들은 동서대 내 어디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신입생 꿀팁을 통해 신입생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프린트 할 수 있는 곳을 자세히 알려주도록 하겠다!



▶민석도서관

학교 높은 곳에 위치하지만 국제관이나 경영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프린트도 6대 이기에 대기 줄이 길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또한 개인당 인쇄가능매수를 20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용지는 개인이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유의하자. 다만 인쇄는 무료이다.

민석도서관 카페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가면 작게 운영하는 유료 인쇄소도 있다. 복사도 가능하며, 시험기간 중 급하게 프린트를 해야 하는데 그 양이 많으면 공용프린트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유료인쇄소를 잘 이용하도록 하자.

▶스튜던트플라자

학교 가장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스튜던트 플라자에는 총 3곳의 인쇄소가 있다. PC

zone에서는 두 대의 프린트가 있으며 대기 인원이 많을시 빠르지는 않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한다. 민석도서관과 같이 무료이며 용지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이용시간은 5시 30분까지 이용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그리고 플라자 3층 동아리방 근처에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프린트 할 수 있도록 프린트가 한 대 설치되어 있다. 용지만 준비되어 있다면 간편하게 PC ZONE까지 가지 않고 그곳에서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플라자 입구에 복사실이 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 유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프린트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급한 학생들은 그곳에서 빠른시간 안에 프린트 할 수 있다. 그리고 컬러 흑백 프린트가 따로 있으며, 오후 7시까지 영업한다. 가격은 흑백 1장에 100원/컬러 1장에 500원이다. 뿐만 아니라 제본, 복사도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라면 2층 피시존에 가면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다. 민석도서관과 같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이 종이는 따로 준비해야한다는 것은 참고하자.

▶글로벌빌리지

글로벌 빌리지 7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프린트를 함께 하고 있다. 개인이 하는 것이기에 유료로 프린트 이용이 가능하지만 학교 가장 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특별히 해주고 있다. 프린트 2대기에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다. 가격은 흑백 50원에서 100원 사이이고 컬러는 3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현희 기자
hyeoneneya@gmail.com

낭만의 바람 불어라 동아리!

동 서 대 학 고 동 아 리 소 개

3월의 캠퍼스는 유독 활기를 띈다. 아마 새내기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면서 그와 함께 낭만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것 중 동아리 활동이 새내기들의 마음속을 크게 차지한다. 학생들의 열정과 활기가 만들어낸 동서대 동아리는 예술, 스포츠 그리고 학문까지 다양하게 뻗어있다. 그럼 이제부터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하고 싶은 동서대 새내기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동아리 소개를 시작하겠다!

■ 문화예술분과



▶ALIVE #SP351 #락밴드

락밴드 동아리 'Alive'는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파트로 나뉘져 있다. 악기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부터 실력자까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음악을 즐기는 공간이니 음악을 좋아한다면 찾아가면 된다.



▶BLACK #SP348 #댄스

동서대학교 유일한 중앙 댄스 동아리 BLACK이다. 춤을 잘 추든 잘 추지 못하는 춤에 대한 애정이 있는 학생들, 부끄럼이 많은 학생, 능력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도 함께 춤을 추고 무대 위에서 끼를 발산하며 확실한 진폭 도모를 할 수 있다. 책임감 있게 멋진 무대를 만들 학생들은 BLACK으로 찾아가면 된다.



▶FILMWORKS #SP338 #영상예술

FILMWORKS는 영상영화 뉴미디어시대의 차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설된 영상예술연구회로서 다양한 학부의 인재들과 함께 새로운 발상과 생각을 공유하며 콘텐츠를 제작해 오고 있다. 독립영화협회와 연계하여 현장 영화감독, 평론가, 배우들과의 만남은 물론 선후배 실습 프로그램 튜터링 등 회원들의 성장을 위한 실무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동아리이다.



▶MIDEVIX #SP350 #자유음악

미디믹스는 1998년에 창단되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활동하고 있는 자유 음악 동아리이다. 매년 자체적으로 하는 정기 공연을 통해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있고, 선후배 사이에 딱딱한 모습보다 서로 소통하는 음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력보다 음악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동아리이다.



▶이피피 #SP303 #만화

만화동아리 이피피이다. 만화 외에도 일러스트를 그리는 활동을 하며 전시회, 화집 출간 등 여러 미술작 활동을 하는 동아리이다.



▶타키온 #SP323 #흑백사진

흑백필름 사진 동아리 타키온이다. 동아리에는 암실이 구비되어 있어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직접 현상, 인화할 수 있다. 흑백필름 사진 동아리지만 시대에 맞게 디지털 카메라 및 스마트폰으로 출사 다니며 학기마다 전시회를 열고 있다. 카메라가 없어도 입부가 가능하다.



▶HI : D #SP343 #버스킹

자유로운 버스킹 활동을 하는 보컬&버스킹 동아리 HI : D (하이드)이다. 월 1회 <버스킹 DAY>에 정기적으로 라이브 버스킹을 진행한다. 그 외에도 자유롭게 버스킹 할 수 있고, 소극장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도 가지고 있다.



▶한또바기 #SP314 #문학비평

한또바기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을 이어온 아마추어 문학 비평 동아리로서 한의 '크다'라는 뜻과 또바기의 '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게'가 합쳐진 말이다. 문학 활동과 문화 활동을 통해 문학의 전문성을 탐구하고 진정한 대학인의 참 교양으로서 문학을 추구하며 나아가 인격도야에 이바지하여 대학교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마하 #SP346 #연극

동서대학교 연극 동아리 극예술연구회 마하는 '어우러짐', '두루 원만함'이라는 창단 이념 하에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주된 활동으로는 신입생 워크숍 공연, 동아리 정기 공연, 친목 도모를 위한 MT 및 동아리 행사가 있다.



▶외가람 #SP310 #여행

여행 동아리 외가람이다. 즐기기에 딱 좋은 나이 20살,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 대학 생활의 황금기인 새내기들 모두 함께 외가람에서 여행을 떠나면 된다.



▶언플러그드 #SP352 #통기타

순수 통기타 동아리 언플러그드이다. 통기타에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망설이지 말고 언플러그드를 찾아가면 된다.



▶예소리 #SP311 #사물놀이

전통문화예술연구회 예소리이다. 예소리는 북, 장구, 징, 쥘리 등 한국의 전통 악기를 주기적인 연습과 외부 공연을 통하여 경험을 쌓아 무형 문화재를 전수받고, 부산에 있는 타 대학의 사물놀이 동아리와 교류하며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동아리이다.

■ 체육분과



▶에이스 #SP339 #야구

부산대회 2위, 전국대회 3위에 빛나는 부산 야구 명문 동아리 에이스이다. 끈끈한 선후배 유대 관계와 부상을 휩쓸어버린 야구 실력을 보유한 에이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DASH #SP349 #축구

축구동아리 DASH는 성별, 실력차이에 상관없이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매주 정기적으로 축구 경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구 외적으로는 동아리원간에 친목 도모를 위한 사교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HOOK #SP304 #농구

농구 동아리 HOOK이다. 농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농구를 좋아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동아리 활동을 즐기면 된다.



▶JOCKS #SP317 #농구

농구 동아리 JOCKS이다. 매주 화, 목 오후 6~10시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있으며 샤워 시설 및 기타 여러 농구용품 보유 중이다. 농구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배워 보고 싶거나 동아리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가면 된다.



▶검도 #SP344 #검도

검도 동아리 검도이다. 검도가 처음인 학생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동아리 원들의 도움이 기다리고 있다.



▶여울 #SP325 #태권도

태권도 동아리 여울이다. 태권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무술로 수련을 통한 심신단련과 강인한 의지와 바른 품가짐과 인성을 위한 교과서적 지침이다. 태권도 승단 및 단증 취득, 각 대학 태권도 동아리 간 교류 확대 및 대회 준비, 동아리원간 친선 겨루기, 공연을 위한 연습 등 많은 활동을 한다.



▶안전제일 #SP312 #보드

안전제일은 롱보드, 스케이트보드, 크루저보드 등 다양한 보드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탈 수 있는 보드 동아리이다. 보드가 처음인 학생이라면 보드 타기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동아리 원들의 도움이 기다리고 있다.



▶레드콕스 #SP345 #배드민턴

배드민턴 동아리 레드콕스이다. 배드민턴을 제대로 배우고 싶거나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거나 즐거운 운동을 하고 싶거나 친목 도모를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레드콕스를 찾아가면 된다.



▶굴림터 #SP322 #볼링

볼링동아리 굴림터이다. 특히 스포츠가 없는 학생, 땀 흘리는 스포츠는 싫은 학생, 볼링을 잘 치지 못하는 학생은 볼링동아리 굴림터를 찾아가면 된다.



▶블루돌핀스 #SP318 #미식축구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미식축구를 경험해볼 수 있는 동아리이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모여 함께 운동하고 매년 춘계, 추계 리그를 출전하며 동아리 원들끼리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활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동아리이다.

■ 봉사학술분과



▶CAN #SP313 #컴퓨터학술

컴퓨터 학술 동아리 CAN이다.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활동하는 동아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친목 도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동아리이다.



▶DFLC #SP305 #주식투자

DFLC는 미래의 필수재테크인 주식투자를 누구나 쉽게 배우고 공유하는 주식 투자 동아리이다. 친목 도모와 함께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찾아가면 된다.



▶더불어 사는 세상 #SP321 #봉사

자유로운 봉사 활동과 많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정 넘치는 봉사 동아리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하랑 #SP324 #메카학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공학계열 대회를 진출하여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카학술 동아리 하랑이다. 주 입상 내역은 교내 scope 설계 경진 대회 대상, 작품 제작 장려상, 창업 캠프 아이디어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교외로는 스마트 Iot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신입생들의 신박한 아이디어 및 설계, 디자인, 시장성 등의 부문에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



▶라포 #SP316 #봉사

라포(Rapport)란 사람 간에 마음이 통하고, 따뜻한 공감이 있으며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봉사 동아리 라포(Rapport)에서는 특수학교, 복지관, 장애인보호센터를 방문하여 기초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와 친근감을 쌓는 동아리이다.



▶백양 로타랙트 #SP320 #봉사

백양 로타랙트는 국제 로타리 3661 지구 소속 및 백양 로타리 클럽의 하위 단체로서 대학생들의 모임이다. 부산 내의 대학 로타랙트 연합 봉사 동아리이며, 정기적으로 월 2회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국내외 타 로타랙트, 단체들과 교류하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봉사들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이다.



▶일본연구회 #SP319 #학술

일본연구회는 여러가지 한일 문제 이슈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함께 공유하며 그에 맞는 문제점을 풀어나가고 선후배와 친목을 다지면서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학술 동아리이다.

이현희 기자
hyeonneya@gmail.com



축 제·공 연 소 식

이월드 별빛벚꽃축제

- 세부장르 : 축제
- 일 시 : 2018.03.24. ~ 2018.04.08
- 장 소 : 대구 달서구

진해군 항제

- 세부장르 : 축제
- 일 시 : 2018.04.01. ~ 2018.04.10
- 장 소 : 경남 창원시

화개장터벚꽃축제

- 세부장르 : 축제
- 일 시 : 2018.04.07. ~ 2018.04.08.
- 장 소 : 경남 하동군

팔공산 벚꽃축제

- 세부장르 : 축제
- 일 시 : 2018.04.13. ~ 2018.04.17.
- 장 소 : 대구 동구

용인에버벚꽃축제

- 세부장르 : 축제
- 일 시 : 2018.04.13 ~ 2018.04.16
- 장 소 : 경기 용인시

강서낙동강변30리 벚꽃축제

- 세부장르 : 축제
- 일 시 : 2018.03.30 ~ 2018.04.01
- 장 소 : 부산 강서구

기장 멸치축제

- 세부장르 : 축제
- 일 시 : 2018.04.19. ~ 2018.04.22.
- 장 소 : 부산 기장군

광안리어방축제

- 세부장르 : 축제
- 일 시 : 2018.04.27. ~ 2018.04.29.
- 장 소 : 부산 수영구

죽비소리

요즘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시름 벅적하다. 그 속에서 우리 젊은 층들은 그 알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만은 그렇지 않았다. 마치 눈부시게 변해가는 세상을 보지 못 한 채 자신만의 길을 걷는 맹인처럼 말이다.

나의 꿈은 소설가가 되는 것이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과랑은 전혀 맞지도 않고 대부분 사람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격정부터 하게 되는 직업이다. 그 때문인지 여태까지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된 말이 '나중에 뭐 먹고 살래?'이었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어필하는 삶보다는 나 자신이 당당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글을 써 왔다. 이런 내 모습이 어른들엔 아직 현실을 모르는 아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들 때마다 난 생각한다. 과연 우리들엔 실재를 두려워할 여유가 있을까? 원하는 목표가 생기면 무작정 달려들기 바쁜데 말이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대학이며, 모두가

고민이라는 시간

이준석(일본어학과·2)

새롭게 변해가는 시간이다. 그 속에서 나만의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무기이다. 무엇을 할지 고민할 시간 없이 달려나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막연한 목표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시기에 항상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이야기한다. 살면서 지금이란 시간이 망설여지고 고민이 많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만 하는 시간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법이야말로 자신을 아는 최고의 방법이고, 망설임을 없애주는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망설임이 없어져야 비로소 사람은 달려갈 수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성공이 아니다. 자신이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을 뿐 거창한 걸치레 따윈 필요 없다.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나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행복한 삶이니까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글을 통해 많은 학생이 자신에 대해 고민할 수 있

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삶은 환상과도 같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면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민이라는 것을 한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후회를 할지 선택하기 위해서 말이다. 결론은 어차피 후회하게 되어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내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선택이라면 망설임 따위는 필요 없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 후회는 그 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이다.

대학교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자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써본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 부자 같은 삶이 아닌 '자신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작은 목표로 말이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멋진 인생이고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분명 다른 멋진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멋진 인생을 목표로 하면서 자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멋진 후회를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엄광산
맑은 소리

'장애우가 맞는 표현인 줄 알았어'
'나도! 장애우가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어'

며칠 전 저와 제 친구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일상 속에 스며든 혐오나 비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장애인 비하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병신', '귀머거리', '병어리' 등 익히 알고 있는 비하 표현의 어원을 검색해 보다가 '장애우'도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장애우 : 장애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무조건 친근하게 가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까지 전제하므로, 장애인을 비주체적이고 비사회적인 인간으로 표현하는 단어.) 순간 제가 초등학교 일 때 앞으로는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담임선생님께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단어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도 TV나 기사를 통해 술하게 접한 단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잘 못 된 표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의 말은

임성은(광고PR전공·2)

무엇보다 '장애우'라는 단어의 우자가 벗 우(友) 자인만큼 '장애인'이라는 표현 보다 더 완곡하고 좋은 표현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잘 못 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즉시 장애인분을 앞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써서 의도치 않게 마음에 상처를 준적은 없는지 생각이 되며 지금까지 잘못된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온 제 자신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장애인'보다 '장애우'가 더 좋은 말일 것이라는 생각부터 은연중에 장애는 불쌍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불편한 것이라는 개념이 깔려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표현이었습니

다. 이렇게 비하나 혐오 표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애우'와 같은 표현처럼 상대를 배려한다고 생각한 표현 또한 충분히 그렇지 못한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는 쉽게 변하기 쉽습니다. 언어가 변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언어의 사회성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합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우리의 평소 언어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속의 비하나 혐오 표현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으면 그 뜻이나 어원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내뱉는 말에 좀 더 신중을 가지고 한 마디 한 마디에 책임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유행어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잊히는 것처럼 이러한 비하나 혐오 표현도 사용빈도를 줄여 나가면 잊히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당신의 그릇이 보인다.' 제가 요즘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혹여나 의도치 않게 내가 말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단어들에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의 힘과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 당신의 손으로 빛은 말 중에서 당신이 선택한 표현과 단어들은 어떤 색을 띠고 있나요?

그 색은, 정말 당신의 생각과 같은 색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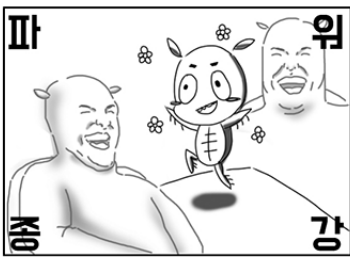
이달의 명언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사아디 고레스탄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속에 수 십 년 동안
화상처럼 쏘여있다.
—홍명로우

방개의 대학일기

개 강



방개는 물방개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물방개는 물에서도 헤엄칠 수 있고 날 수도 있는 곤충입니다. 우리 동서인도 어느 곳에서도 인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태어난 캐릭터입니다. 방개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작가주

사 설

요즘 '대학생 재테크'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대학생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높은 만큼 작은 액수부터 큰 액수까지 여러 방향으로 투자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뗏목을 잘라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돈과의 연을 맺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돈은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소유욕, 구매욕 등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 시켜주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이게 된다. 그 지속성과 영원성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으로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있다. 점점 자라 성인이 되면서는 스스로 소비하고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돈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된다.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의미가 있나?', '열심히 일해 봤자 소용없다'

수입과 지출이 불균직한 20대인 대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돈에 대해 이러한 고민과 허무함에 대해 생각해보았을 것

이다. 그러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재테크, 주식, 펀드 등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또래 친구들의 주식 투자가 들려온다. 그중, 최근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주식투자인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이란 지폐,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온라인 가상화폐(디지털 통화)를 말한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단위의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용어로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기존 법화(法貨)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2009년에 처음으로 개발됐다. 특히나 2009년에는 미국의 금융 위기가 한창이던 시기이고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엄청난 양의 달러화폐를 찍어내어 시장으로 공급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던 때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이라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떠오르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익명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비트코인은 만 20세 이상의 연령대와 인터넷 사용 가능자라면 누구나 쉽게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편리하지만 돈 세탁, 마약 거래, 엄격한 코인 공급량 등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비트코인 공급량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10분마다 25개의 새 코인이 생기지만 21만 개가 발행될 때마다 코인이 반감되어 사라진다. 현재는 채굴 한도인 2,100만 개 중 약 80%인 1,671만 개 정도 이미 채굴된 상황이다.

이러한 주식 투자는 급변하는 특징과 함께 폭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위험 부담이 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야 할 문제이다. 가상화폐 거래에 중독이 되면 장소를 불문하고 휴대폰, 인터넷으로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면서 일회일비하게 된다. 불규칙한 수입·지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가상화폐로 인해 인간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주가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도 십상이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한 젊은 20대 대학생의 안타까운 자살 뉴스를 접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젊은 대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지원금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용돈을 합해 약 2,000만 원을 비트코인에 모두 투자하여

약 2억 원 가량의 돈을 얻었지만 비트코인의 폭락 이후 거의 다 잃게 되어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소식이었다. 아직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심리적인 손실금에 대한 상실감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돈에 대한 인생관전을 꿈꾸던 이 젊은 대학생은 비트코인 폭락과 함께 삶을 빨리 마감했다.

도대체 무엇이 이 학생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만들었을까. '젊어서 그런 것도 못 참아?', '젊은이가 참 나약하구만'이라는 반응은 이러한 사건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생겨난 많은 문제점들 중, 대표적인 부작용인 '한탕주의'가 있다. 한 번의 시도로 큰 재물을 얻거나 크게 성공하려는 태도를 속하게 이르는 말을 뜻하는 단어인 한탕주의. 이 한탕주의는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20, 30대들 사이에서 더욱 극성하고 있다. 이 대학생 또한 이러한 한탕주의의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한 번에 큰 액수의 돈을 벌고자 했던 기대감, 욕심이 비트코인이라는 투자로 인하여 생명을 끊는 시작의 불씨가

되었다. 제한적인 돈을 위험부담 없이 불리고 싶다면, 급변하는 금액의 투자보단 차라리 천천히 쌓여가는 적금이 현명하지 않았을까. 일찍 생을 마감한 젊은 대학생의 소식을 들으면서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옛 사람들이 신을 위해서 행했던 것을 요즘 사람들을 돈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프레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황랑하게 사는 것 같다. 참으로 정춘이 안타깝지 않은가.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한 방에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상화폐에 자신의 정춘을 걸고 싶은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직 이 투자 시장에 빠진 젊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식 투자에 대한 폭락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젠가 다시 오르게'라는 막연하고도 위험한 기다림이 젊은 대학생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으로 이끈다. 우리는 이러한 '주식투자'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는

신혜정 기자
hyejung4947@gmail.com

목회칼럼



유 의 신 교목실장

재학생들과 입학생을 모두 2018학년도 새로운 시작에 격려를 보낸다. 동서학원에서는 급년 표어를 '주안에서 화목 하라!' (살전5:13)로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지금같이 각계는 물론 가정과 사회 전반적으로 모래알처럼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가고 있는 시대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생활 모토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충격적인 게임이 하나 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자화상(自畫像)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여자 팀 추월(team pursuit) 경기에 출전 했던 3사람의 이야기이다. 이들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경기에 게임원칙을 벗어나서 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주안에서 화목 하라!

이기적 생각에 사로 잡혀 다른 한 사람을 배제하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추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이 팀 추월경기를 '머리가 셋 달린 짐승'으로 비유 될 정도로 세 사람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경기라고 한다. 결과는 뻔한 것이다.

어디 이 경기만 그런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전공과 학부는 어떤가?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사분오열(四分五裂)하여 제대로 역할을 해 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지 돌아 봐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화목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그러면 어떻게 화목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멤버십(membership training)을 하고 물리적으로 함께 묶어도 화목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화목은 누구로부터 풀어야 할까? 나인가 녀인가 아니면 시스템인가? 인위적으로 화해와 화목을 해보려고 노력 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불화하고 홀로 남겨 되는 일이 하다란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급년 표어에 첫 부분인 '주안에서'로 풀어야 한다. 여기서 '주(LORD)'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화목의 지름길이라고 하신다.

왜 그런가? 이 죄는 나를 나로 받아드리지 않고 나와 내가 적이 되어 갈등하는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내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 지기가 어렵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는 누구 하고도 적이 없이 살기가 힘들어 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3월 만에 부활 하시어 새로운 화해의 길을 터놓으신 것이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하나님)로 믿으면 더 이상 죄에 매여 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화목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5:17-18상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8:31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동서만평

글·그림 최인아



■ 학생 인터뷰 – 국제통상전공 황윤주 졸업생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에 최적적인 학생이 되다!



우리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은 SAP, DAIP, K-Move 해외 파견일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 프로그램들을 모두 경험한 학생이 있다. 미국 SAP, DAIP 캄보디아, K-Move 미국 인턴십 등을 경험하여 자신을 국제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이끌고 영어실력도 향상시킨 국제화 프로그램에 최적적이 되어 있는 것이다.

다양한 기회를 발판 삼는 동서대 국제통상전공 졸업생 황윤주 씨를 인터뷰 해보았다.

황윤주 씨는 재학 중 K-Move 미국 인턴십을 가게 되었다. 과정 중에는 LA 소재 유명 의류업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Import, Design, Web 부서에서 1년간 열심히 수련하였다고 한다.

동서대 블로그 My Bright Future에 쓰인 황윤주 씨의 취업 수기에 따르면 “국제통상이 전공인 저로서는 패션 분야 전문용어와 시스템 프로세스가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다소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노트와 펜을 들고 다니며 회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받아 적었고, 퇴근 후에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시스템 프로세스, 전문용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처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잡아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동서대학교 졸업생 황윤주 씨를 만나러 가보자.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학과 졸업생 황윤주라고 합니다.

Q. 처음 질문이에요. 취업을 하고 나서 심정이 어떠셨나요?

A. 재학 중 수업시간 내내 들던 꿈의 기업인 한진그룹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 성취감은 정말 대단했어요. 대학교 신입

생처럼 설렘과 목표로 가득 차있었죠.

Q.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만약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A. 취업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랐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면접 스테디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 저는 그냥 저 혼자 준비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고 제 진심을 보여주는 것 최고라고 생각했구요.

그만큼 한진그룹에 대한 꿈이 컸으니까요.

Q. 현재 국제통상전공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저는 국제통상전공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는데, 제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공부하니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가끔 신상에 견학을 가면, 거기서 각종 장비들과 바다를 보는 것도 좋았고,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들도 너무 좋았어요.

Q. 한진 기업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수업시간 내내 들던 한진그룹은 전공 공부에 흥미가 생기며 제 꿈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며 한국의 최고의 물류 기업에서 실무를 직접 하며 더 배워보고 싶었어요.

Q. 취업을 위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 있나요?

A. 토익이나 토익 스피킹은 기본이 되어가고 있고, 그 외에 제가 준비했던 것은 대학 4년을 정말 알차게 열심히 지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 후 동서대학교 입학 전부터 SAP 미국에 대한 목표가 있었으며, 동서대학교에 입학 후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제 자신을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Q. 대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간단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동서대학교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미국, 일본, 중국, 헝가리, 리투아니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의 대학들과 교류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대학 생활도 열심히, 재미있게 하시면서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더 멋진 대학생활이 되길 바라요.

Q.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K-Move라는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국의 패션회사에서 1년간 일한 적이 있어요.

제 전공과 다른 패션이라는 분야에서 물류, 웹, 디자인 부분을 맡아 일을 하였어요.

처음엔 패션이 제가 4년 동안 배웠던 전공이 아니라서 되게 막막했었지만,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하다 보니 나중엔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때처럼 한전에 취업하고 나서도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성실히, 책임감 있게 하다보면 잡힐 수 있을 거라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17년 9월에 입사해 18년 2월의 지금까지 업무의 고비의 고비를 넘은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했어요.

입사한지 6개월도 안되었지만,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구요.

그 덕에 지금 잘 적응하여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든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 같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되, 끈기 있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후배들을 응원합니다!

지은서 수습기자
eunseo9830@gmail.com

■ 교내 근로자 인터뷰 – 학생상담센터 상담사 최혜지

응급상황은 119, 고민이 있을 때는 학생상담센터!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 한번쯤은 성적, 집안사정, 개인사정 등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동서대학교 국제협력관 1층에는 학생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학생을 심리적으로 치유시키는 상담사 중 한 분을 모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상담사 최혜지입니다.

Q. 학생심리상담사를 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가요?

A. 보통 상담사 혹은 심리상담사(상담심리사)라고 불리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에 대한 호기심으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해하며 자신의 고민을 풀어나가는 상담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창시절에 고민을 잘 나누지 못해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담 공부를 통해 저 스스로도 성장해나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Q. 상담사가 되는 데 필요한 자격이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가 있습니다. 이는 심리학, 교육학, 청소년상담학과를 졸업하고 난 이후 필기시험·면접시험·연수과정을 통해 3급을 취득할 수 있으며, 상위자격증인 1·2급은 해당자격조건에 따라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의 자격검정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이들 자격은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편으로 대학원(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등) 석사과정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교육연수인증기관 및 수련감독자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수련, 필기시험, 면접시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나 수련 활동들은 상담사가 되기 위한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Q.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주로 어떠한 일을 하신가요?

A. 저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상담, 검사상담(심리검사 실시·해석), 집단상담, Peer Counseling 프로그램(정서지원 멘토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소개를 드릴게요. 개인상담은 평소 가지고 있던 관계 어려움, 진로 선택 어려움 등과 같은 다양한 고민을 상담시간에 나눌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을 더욱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도움을 얻어가곤 하지요. 심리검사는 자신의 성격유형·진로적성·학습유형·정서 등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자신을 이해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단상담은 어떠한 주제에 맞춰 소수의 사람이 모여 진행되는 상담과정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목표하는 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eer Counseling 프로그램(정서지원멘토링)은 선배와 후배가 한 팀을 맺어, 선배는 어려움을 지닌 후배를 풀어주고 이끌어주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키우고 후배는 다양한 정보를 얻거나 듣지 못한 선배와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멘토로서의 보람을 받는 활동입니다. 매 학기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멘티들은 학교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좋은 선후배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을 볼 때 제일 뿌듯하다고요.

Q. 상담사 일을 하면서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심리상담사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느끼시나요?

A. 제가 어릴 적에 생각했던 상담사의 이미지는 심리학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매우 분석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상담전문가/정신과 전문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상담을 공부하다보니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사와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가 우선 진심으로 자신을 내어놓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며 자신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나가 보는 과정이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성장해나가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그 인의 상담과정은 더욱 포근하며 매 순간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술적이고도 멋진 과정이더라고요.

Q. 동서대학교 학생상담센터를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A. 학생상담센터는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상담, 멘토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매 학기 제공되는 다양한 특강이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자신감 있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취업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인식증진 교육과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하며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피해 사건뿐만 아니라 성(性)에 대한 다양한 고민으로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대 학생이라면 모든 비용은 무료이므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오세요~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심리상담, 집단상담, 특강, 프로그램 등은 모두 대학 홈페이지의 모집/공지 게시판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용 방법은 학생상담센터 플플릿을 참고하거나, 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릴게요!

이동훈 수습기자
roma11043@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여호사밧



▷사진출처 : rugusavay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브라임 산지까지 만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 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대하 19:4).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1.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B.C. 872-847년). 아사 왕과 아수바 사이에서 태어났고, 35세에 왕위에 올라 25년간 통치했다. 불의 한 왕 아합이나 아하 시아와의 연합 같은 실수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분을

경외함으로써(왕상 22:4; 대하 19:9) 히스기아, 요시아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善王)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대하 17:6-9; 18:4-6; 19:2-11; 20:3-32).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견고해졌다(대하 17:10-19). 이 같은 강성함을 지속시키기 위해 그는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인 아달라와 정략결혼시키는 잘못을 범하였다(대하 18:1). 물론 이런 결속으로 솔로몬 사후 계속되었던 남북 간의 전쟁이 종식되기는 했지만(왕상 22:44), 양국은 이를 기반으로 아합의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가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구하는 치명타를 입었다(대하 18:2-34).

그 후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이 유다를 침입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간구하여 승리를 얻는다(대하 20:1-30). 한편, 승리한 후 여호사밧은 북 왕국의 아하 시아와 더불어 배를 만들

어 오빌의 금을 들여오려고 했지만 선지자 엘리에셀의 책망대로 배가 파손하여 실패하고 만다(대하 20:35-37).

그는 죽기 전에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아들들에게는 견고한 성읍과 보물들을 선물로 주었다. 사망 후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대하 21:1-3). 더 자세히 말하면 그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어루뭇들 앞에서 만나라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향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하였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함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광야로 나아갔다. 그들이 싸움터로 진군할 때에 여호사밧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고 말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려하는 자를 택하여…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대하 20:14~21)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군대 앞에 행하며 소리를 높여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원수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나가는 모습은 특이한 전쟁 방법이였다.

2. 이외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관 아히ئ롯의 아들(삼하 8:16), 솔로몬의 12관장 (양식을 조달하는 담당관) 중 한 사람으로 잇사갈 지파 바루아의 아들(왕상 4:17), 아합 왕가를 파멸시킨 남시의 아들인 예후의 부친(왕하 9:2, 14)

들이 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 및 여호람과 긴밀한 정치적·경제적 동맹을 유지했으며, 아합을 도와 라못길르앗 성을 재탈환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아하시야와 함께 해상 무역을 확대했고, 여호람을 도와 모압 전투에 참가했으며, 자기 아들로써 계승자인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리야와 결혼시켰다. 유다에서 그는 군대를 재조직하고, 여러 차례 필리다. 결국, 대학 졸업 이후의 진로/취업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는 인권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인식증진 교육과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하며 성희롱·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피해 사건뿐만 아니라 성(性)에 대한 다양한 고민으로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대 학생이라면 모든 비용은 무료이므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오세요~ 저희 센터에서 진행되는 심리상담, 집단상담, 특강, 프로그램 등은 모두 대학 홈페이지의 모집/공지 게시판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용 방법은 학생상담센터 플플릿을 참고하거나, 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릴게요!

그 뒤 여호사밧은 예조은 게베르에서 타르시스로 가 예피르에서 금을 가져오는 상선들을 만들었으나 마레 사 출신의 예언자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예제르가 아하 시아와 동맹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되어 더 이상 타르시스로 갈 수 없다고 예언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상선들이 다 부서져 더 이상 타르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다음백과
위키백과

이주원 수습기자
soo4793@gmail.com

DSU 동서대 신문기자협회

cyWORLD

동서대신문사 ▼

| 수습기자 모집 일정 |

- 일반기자(대학단신, 기획/특집, 글로벌, 취업, 문화)
- 동서대신문사에 관심있는 동서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 교내 각 식당 및 동서대신문사 내 원서배부
- 지원 : 3월 2일~3월 23일까지
편집국장에게 연락바랍니다.
- 면접 : 개별 연락드립니다. - 동서대신문사
- 문의 : Tel) 320-2141(산학협력관 5609)
010-3331-8399(편집국장)

3월 23일 수습기자모집

당신의 열정이
크ampus를 만듭니다

Made in DSU Press